

이원우 송파구의원

‘제1회 한글문학 문학대상’ 수상

이원우 시인의 시집 『내안에 피는 꽃』로 제1회 한글문학 문학대상을 수상했다.

오랜 창작활동을 통해 서정적인 감정을 함축해 온 이 시인은 이번 수상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사단법인 한글문인협회 이사장(정명숙)이 주최·주관하고 송파구청·송파구의회·한글학당·돌체클래식·미래일보·서울매일신문 TV 등이 후원한 제1회 한글문학대상 시상식이 지난 10월 17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송파여성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수상작인 『내 안에 피는 꽃』은 시골의 이미지와 부모에 대한 효심이 묻어나는 서정적인 이



미지를 심어준 시집이다. 도시에
서 살아가면서 고향의 추억을 되

살리는 시적 상상력은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정을 묻어나게 한다.